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빌보드 200’ 세 번째 정상 영국 오피셜차트에도 1위 한국 가수로는 처음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 수상 유력



BTS, 미국·영국 동시 1위 ‘K팝 새 역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양대 팝 차트를 석권하는 K팝 신기원을 열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올린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 12일 공개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정상을 휩쓴 건 지난해 5월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지난해 9월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발매 이후 세 번째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18일까지 20만점에서 22만5000점의 앨범 수치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가 1위로 등장할 4월 27일자 ‘빌보드 200’ 차트는 오는 21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때 발매 첫주 18만5000점을 얻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예상대로 20만점 이상을 얻는다면 전작 성적을 뛰어넘게 된다.

빌보드는 ①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traditional album sales) ②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rack equivalent albums-TEA) ③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treaming equivalent albums-SEA) 세 가지를 섞어 앨범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때 음원 10곡을 다운받거나, 1500곡을 스트리

밍 서비스받은 경우 전통적인 앨범 1장을 산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200’ 차트 3위에 올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5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들의 ‘핫 100’ 최고 순위는 지난해 ‘페이크 러브’(FAKE LOVE)로 세운 10위였다.

영국 오피셜차트 역시 15일 “방탄소년단이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로 영국 오피셜 차트의 역사를 쓰게 됐다”며 방탄소년단의 차트 1위를 예고했다.

한국 가수가 영국 오피셜차트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오피셜차트는 “새 앨범이 현재 1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자체 최고 판매량을 달성하며 한국 최초의 1위 앨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앨범 판

매량은 지난해 톱 10에 진입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를 포함해 지난 3개 앨범의 첫 주 판매량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고 했다.

방탄소년단의 승전보가 전해지자 팬클럽 아미(ARMY)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해시태그(#)로 #BTS, #BTSARMY 등을 공유하며 방탄소년단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오랫동안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지켜온 서로를 복돋아 주기도 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트위터 아이디 @Vst***은 “우리는 수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고, 방탄소년단은 바닥에서부터 모든 걸 쌓아 올렸다. 방탄소년단이 길을 개척했다는 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며 감격에 겨워했다.

또 “미국은 물론 영국도 1위라니 정말 대단하다”(네이버 ‘jn6****’), “방탄소년단 기록소년단 화이팅!”(‘bd_1****’), “나이 인종 국적 그런 벽없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이 순간!”(‘wha****’) 등 환희

에 찬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임진모 대중음악 평론가는 “양대 팝 앨범 차트 정상이 세계적인 음악 강국에서 방탄소년단의 존재감이 확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빌보드와 오피셜차트 싱글 차트에서의 영향력”이라며 “통상 싱글 차트 정상이 세계적인 히트송을 의미하고, 완벽한 세계 시장 선두주자란 걸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오는 5월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주요 부문 수상에 한발짝 다가섰다.

이 시상식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은 이들은 올해 ‘톱 듀오/그룹’(Duo/Group) 후보에 올라있다. 또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피처링에 참여한 팝스타 할리와 함께 하는 무대도 예고됐다.

/연합뉴스

kbc 광주방송

휴스턴 국제영화제 2관왕



‘옥매산 그 아픔을 넘어’ 금상 ‘민주경찰 안병하’ 은상 수상

kbc광주방송 다큐멘터리들이 미국 ‘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나란히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옥매산 그 아픔을 넘어’와 ‘민주경찰 안병하’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이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옥매산 그 아픔을 넘어’(연출 신종문·촬영 이상원)는 일제하 제주도 강제 동원으로 1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해남 옥매 광산의 아픔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작품을 연출한 신종문 PD는 지난해 ‘사람사는 마을 양림동’에 이어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민주경찰 안병하’(연출 김태관)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의 발표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전남도경찰장 고(故) 안병하 차안감의 일대기를 통해 5·18의 숨은 의인들을 재조명하고 민주화쟁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규명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1961년부터 영상분야에서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작품을 시상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영화제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영화제와 함께 미국 3대 영화제로 꼽힌다. 올해는 40여개국 4500여개 작품이 출품돼 열린 경쟁을 벌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Slot,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음 3월 13일 甲申)

Table with 3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Birth Year Range, and Fortune Predictio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